2022.12.04

꿈의 내용

층수가 굉장히 많은 공동 주택에 들어온 남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갔다 한다. 공동주택은 한 층 한 층의 넓이가 넓다. 1층에는 여러 출입구가 있고 사람도 많이 오갈 정도. 남자는 어떤 호실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출입구로 들어가 여러 층을 오락가락 하는 느낌이다. 건물 전체가 흰색 벽으로 되어 있으며 어쩐지 동남아시아의 정신병 걸릴 것 같은 습하고 공기 중이 꽉 찬 분위기. 게다가 남자와 만나는 사람들은 어쩐지 무언가 들뜬 것이다.

학교에서 이종민과 이나희와 기타 사람들 모두 교복을 입고 있다. 이나희는 어쩐지 우울한 느낌. 실제 현실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걸 알게 된 내가 나희를 꿈에서 보게 된 건 아마 나희에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닐까. 나희라면 내 첫 경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키도 크고 몸매도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는 걸 오히려 놀리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줄 것 같은 느낌. 어쨌건 이 꿈에서 나희는 계속 조용히 표정 변화 없이 교실에 있다.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희는 옷을 입고 있지 않다. 맨몸으로 교실에 앉아 있다.